

2025
제2권

해양수산 ODA 리포트

목차

- 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 ② 주요 의제
- ③ 전문가 기고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01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국제해사기구(IMO), 탄소 감축 프레임워크 추가 강화 필요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83) 회의를 통해 탄소 배출 상한 초과분에 가격을 부과하는 중장기 조치 패키지(mid-term measures)를 공식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국제 해운 산업의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IMO가 이전에 시행했던 연료 효율 중심의 단기 대책 이후의 후속 단계에 해당한다.¹⁾
- IMO는 앞서 2008년 대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 감축(최대 30% 감축을 위해 노력), 2040년까지 70% 감축(최대 80%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탄소 감축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최소 8~2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전에 설정된 수치와 비교할 때 야심 수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²⁾
- 탄소가격제에 대한 진전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같은 전면적인 탄소가격제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전면적인 가격 부과는 병커유 사용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탈탄소화를 위한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카길(Cargill), 트라피구라(Trafigura)와 같은 글로벌 주요 해운기업들은 그동안 전체 배출에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기반 도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해상 운송 비용의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현재로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한편, 최근 해운 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³⁾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1) IMO Meeting Summaries(2025.4.11.),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83), 7 to 11 April 2025,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83rd-session.aspx>(2025.6.9.)
 2) EU Press Release(2025.4.11.), Landmark agreement towards achieving net-zero emissions from global shipping by 205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37(2025.6.9.)
 3) ING News(2025.4.16.), Transport & Logistics, <https://think.ing.com/opinions/imos-net-zero-strategy-for-global-shipping-is-a-start-of-pricing-carbon-but-its-not-perfect/>(2025.6.9.)

독일개발은행, 모로코 담수화 사업 지원

- 모로코 국가전력수도공사(The National Office of Electricity and Drinking Water, ONEE)는 시디 이프니(Sidi Ifni) 및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롭게 건설된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시디 이프니 및 티즈니트(Tiznit) 주의 아글루(Aglou), 미를레프트(Mirleft), 아르바 사헬(Arbaa Sahel) 등 지역과 주변 농촌 지역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NEE는 이번 사업으로 약 85,0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총 사업비는 약 3억 2천만 모로코 디르함(MAD)으로 독일개발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의 용자를 통해 자금이 조달됐다.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담수화 플랜트는 하루 8,640m³(초당 100리터)의 담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17,280m³/일(초당 200리터)로 확장이 가능하다.
- ONEE는 본 사업이 모로코 정부가 2020년 국왕 무함마드 6세의 주재 아래 체결한 국가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 프로그램(PNAEPI 2020-2027)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플랜트 가동을 통해 기존 지역의 주요 수원지였던 요세프 벤 타슈핀 댐(Youssef Ben Tachfine Dam)에 집중되었던 물 공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ONEE는 지난 15년간 모로코 남부 겔뮴-우에드눈(Guelmim-Oued Noun) 지역 전역에 걸쳐 9억 디르함 규모의 식수 및 위생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해당 지역은 최근까지 반복적인 단수 사태와 물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담수화 플랜트는 이러한 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⁴⁾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4) Morocco World News(2025.3.29.), Morocco Launches New Seawater Desalination Plant in Sidi Ifni, [https://www.morocco-worldnews.com/2025/03/188714/morocco-launches-new-seawater-desalination-plant-in-sidi-ifni/\(2025.06.09.\)](https://www.morocco-worldnews.com/2025/03/188714/morocco-launches-new-seawater-desalination-plant-in-sidi-ifni/(2025.06.09.))

일본, 태평양 회복력 기금에 6백만 달러 지원

- 일본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재난 대비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억 1,700만 엔(약 600만 달러)을 태평양 회복력 기금(Pacific Resilience Facility, PRF)에 공식 약정했다. 이번 지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 기반 회복 체계 구축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PRF는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금융기구로, 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관이다. 일본의 이번 자금 지원은 기후위기와 재해에 취약한 도서국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⁵⁾
- PRF의 주요 목표는 태평양의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빠르고 존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이다. PIF 사무총장 바론 디바베시 와카(Baron Divavesi Waqa)는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PRF가 태평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해법(commnity-driven solutions)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PIF와 일본 외무성 간에는 협의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PRF의 운영 목표가 태평양 지역의 장기 개발전략 및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의 약속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PRF는 또한 향후 글로벌 기후기금 및 다자개발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을 보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일본의 공여는 “2050 블루 퍼시픽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⁶⁾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5) Pacific Islands Forum(2025.3.10.), RELEASE: Pacific Resilience Facility Receives First Capitalisation Contribution from Japan, <https://forumsec.org/publications/release-pacific-resilience-facility-receives-first-capitalisation-contribution-japan>(검색일: 2025.6.5.)

6) FBC News(2025.3.11.), Japan funds Pacific disaster preparedness, <https://www.fbcnews.com.fj/news/japan-funds-pacific-disaster-preparedness/>(검색일: 2025.06.05.)

영국, GNI 대비 원조 지출 0.5%에서 0.3%로 기존 대비 40% 삭감한 예산안 발표

- 2021년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 시절, 영국 의회에서는 GNI 대비 0.7% 수준이던 원조 예산안을 0.5%까지 삭감하는 예산안을 333대 298표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의결이 팽팽하게 엇갈림에 따라 존슨 전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내외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보수당 측 인사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⁷⁾
- 최근 키어 스타머 총리 내각은 GNI 대비 0.5% 수준인 원조 예산안을 2027년까지 0.3% 까지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서 스타머 총리는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방비를 2.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원조 예산 삭감은 안보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⁸⁾
- 영국 해외원조 예산은 GNI 대비 0.7% 기준이었던 2020년 기준 약 145억 파운드에서, 0.5%로 삭감된 후 2021년 115억 파운드로 집행되었다. ⁹⁾¹⁰⁾ 영국의 GNI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번 예산 삭감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2024년 약 140억 파운드였던 원조 집행액이 40% 삭감되어 약 84억 파운드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¹¹⁾
- 202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OECD DAC의 주요 회원국들의 잇따른 해외원조 예산 대폭 삭감안 발표에 따라, 특정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던 국제개발협력 분담금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원국의 원조 사업 포트폴리오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7) Politico(2021.07.13.), UK MPs back Boris Johnson's foreign aid cut despite outcry, <https://www.politico.eu/article/uk-mps-back-boris-johnsons-foreign-aid-cut/> (2025.06.05.)

8) The Guardian(2025.02.25.), Starmer announces big cut to UK aid budget to boost defence spending,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5/feb/25/starmer-planning-big-cuts-to-aid-budget-to-boost-defence-spending-say-sources> (2025.06.05.)

9) Gov.uk(2022.06.08.),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l UK aid spend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final-uk-aid-spend-2020/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final-uk-aid-spend-2020> (2025.06.05.)

10) Gov.uk(2023.03.15.),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l UK aid spend 202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final-uk-aid-spend-2021/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final-uk-aid-spend-2021> (2025.06.05.)

11) Gov.uk(2025.04.),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visional UK ODA Spend 202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f90e5f45705eb1a1513f58/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Provisional-UK-ODA-Spend-2024.pdf> (2025.06.05.)

EU, 원조 지출 감소와 잇따른 예산 삭감안 발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이 지난 4월 발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약 2,432억 유로에 달하던 EU의 원조 지출이 2023년 1,867억 유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 포인트에 달하는 지출 감소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지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²⁾
- 2022년 EU의 원조 지출은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연구개발 및 혁신, 지역 개발 등 EU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9% 가량 사용된 반면, 2023년에는 73%가 사용되었다. 대대적인 원조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EU의 정책 목표 추적은 청사진을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리스크 감소로 인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ODA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¹³⁾
- 한편, 2024년 EU 내 DAC 회원국의 ODA 지출은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 내 처음 발생한 감소 사례로 보고되었다. 이 중 최빈개도국(LDCs)에 할당된 ODA는 약 350억 달러로, 2023년에 비해 3% 줄어든 수준이다.¹⁴⁾
- 유럽 국가들의 원조 예산 삭감은 EU의 원조 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외 주요 공여국은 이러한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¹⁵⁾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12) European Commission(2025.04.08.), State aid Scoreboard 2024 shows Member States focused State aid expenditures towards long-term key EU prioriti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952 (2025.06.05.)

13) European Commission(2025.04.08.), State aid Scoreboard 2024 shows Member States focused State aid expenditures towards long-term key EU prioriti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952 (2025.06.05.)

14) Concordeurope(2025.04.16.), The EU's short-sighted aid cuts are a choice - so is the way forward!, <https://concordeurope.org/2025/04/16/the-eus-short-sighted-aid-cuts-are-a-choice-so-is-the-way-forward/> (2025.06.05.)

15) The Guardian(2025.04.15.), EU will struggle to fill gap left by USAID as European countries cut their budgets,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5/apr/15/eu-struggle-fill-gap-usaid-european-countries-cut-budgets> (2025.06.05.)

아프리카, 'post-aid' 시대에 대한 새로운 개발 어젠다 구축 필요성 강조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기존에 절차 중심적 상호주의와 평화와 화합의 정신에서 외교적 업무, 지정학적 권력 과시 등의 목적으로 점철되어있던 국제개발의 정신이 변질되면서 냉전시대 이후 국제개발의 기조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구권 공여국에 과의존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지적했다.¹⁶⁾
- 이러한 급격한 지출 감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해외원조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저개발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개발 어젠다가 필요한 실정이다.
- 지난 4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아킨우미 아데시나 박사는 “앞으로 공짜 원조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전투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아프리카가 더이상 공여국의 ‘자선’행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신뢰에 기반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격하는 데 힘을 써야할 때”라고 덧붙였다.¹⁷⁾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16) WEF(2025.04.21.), 5 futures for aid in a divided world, <https://www.weforum.org/stories/2025/04/5-futures-for-global-aid/> (2025.06.05.)

17) AfDB(2025.04.12.), “The era of aid or free money is gone. Africa must overhaul its approach toward achieving fast-paced development.”, <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press-releases/era-aid-or-free-money-gone-africa-must-overhaul-its-approach-toward-achieving-fast-paced-development-82827> (2025.06.05.)

02 주요 의제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아프리카 ODA 전진기지로 육성하자

1966년,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이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 라루스 항만에 입항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입항을 넘어서 향후 반세기 이상 지속될 한국과 스페인 해양 협력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초입에 있었고,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산업은 귀중한 외화 획득 수단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발판이었다. 그 이후 수많은 한국 선원들은 라스팔마스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서부 해역과 대서양으로 진출해 원양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다.

한국 선원들은 이곳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머물며 생소한 환경과 언어, 문화적 장벽을 넘어 고된 노동을 감내했고, 이들이 송금한 외화는 한국의 가계경제를 지탱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닦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라스팔마스에 체류했던 수많은 한국 선원과 가족들, 상사 주재원들은 스페인 현지 사회와 우호적으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양국 간 신뢰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었고, 올해 한국과 스페인의 국교수립 75주년인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친선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인연 위에, 오늘날 우리는 라스팔마스를 아프리카와의 국제협력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라스팔마스는 지리적으로 서부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미 스페인 정부와 국제기구, 다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라스팔마스 섬을 근거로 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섬에 소재한 라스팔마스데그란까나리아대학교(University of Las Palmas de Gran Canaria: ULPGC)는 해양수산 정책, 수산양식, 생명과학, 해상법, 지속가능개발, 관광, 의료 등 아프리카 협력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대학으로 다양한 ODA사업,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의 플랫폼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라스팔마스대학은 스페인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체코 등 유럽의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 NGO 등을 초대하여 브릿지투아프리카(Bridge to Africa) 포럼을 격년으로 개최하여 아프리카

대상 다양한 협력사업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외교부는 까사아프리카(Casa Africa)를 라스팔마스섬에 설립하여 대아프리카와의 문화와 공공외교,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필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ULPGC가 공동 운영하는 한-스페인 해양수산 공동연구센터(CEIMARPE)의 센터장으로 현지 근무하며, 양 기관 간 협력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다. 필자가 부임할 당시는 세네갈 국립선원학교에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감척한 한국 어선을 공여하는 시점이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선박을 매개물로 학생들의 승선 훈련선으로 활용하여 해수부의 교육훈련 ODA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다년간 사업을 수행하였다.

즉, 2017년부터 아프리카 세네갈해양경제부와 협력하여 세네갈 선원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라스팔마스 지역의 선장, 기관장 출신 한국 전문가들과 스페인 해상법 교수, 전 IMO 대사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한국, 스페인, 세네갈 세 나라의 삼각 협력의 중요한 사례 즉, 행정적 협력과,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이전 및 문화적 협업이 실현된 실질적 국제협력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례였다. 또한 이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ODA, 즉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2025년 6월 17일, 필자는 KMI와 라스팔마스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프리카 수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수산업, 그리고 해조류 기반 신산업을 주제로 하여 오늘날 아프리카 연안국들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수산자원 고갈, 해양수산 인재 부족, 공급망의 불안정—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는 자리였다.

향후 한국이 라스팔마스섬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연안국들과 추진할 수 있는 해양수산 협력 사업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족한 어선원의 총원을 위한 아프리카 청년 교육훈련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 원양어선에의 승선 지원,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을 위한 IUU어업 방지와 해양공간관리(MSP), 조업감시체계의 강화에 기여하는 국제옵서버교육, 아프리카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산양식(해조류, 어류, 패류 등) 등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위한 농업분야와 협력, 맹그로브의 보전과 연계한 양식개발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질 협력은 한국의 해양수산 기관들의 경험과 라스팔마스 지역의 아프리카 관련 유무형의 자산이 만나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60년 전 시작된 원양어업에 기초한 양국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라스팔마스를 한국의 아프리카 해양수산 ODA의 교두보로 육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과거의 우정에 기초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수산 협력을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주요 이력〉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해양수산분과위원장

현) 사)국제해양법학회 이사

전) 한-스페인 해양수산협력센터(CEIMARPE) 센터장

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현) 미 뉴욕주 변호사(2008~), 법학박사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03 전문가 기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신아시아전략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확대되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134개국에 달하고, 중국을 포함하여 경제적 위상과 비중도 다양하고 국가간 개발 격차가 커서 단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했던 전통적 사우스와는 달리 탈냉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됨에 따라 신흥경제국(EMEs)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스웱국가로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비중은 전세계 GDP의 40% 수준(중국 포함)이어서 G7의 경제규모를 상회하였고, 2030년에는 전세계 GDP의 5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경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흥경제대국으로 구성된 BRICS의 경우 원유생산량의 41%, 인구의 46%,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G7의 경제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이 '브릭스 플러스'인 11개국으로 늘어났고,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지역별로 30여개국이 BRICS 파트너국으로서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비중과 위상이 제고되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전후로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됨에 따라 2009년 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7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된 것은 지속적으로 국제질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성장경로가 다양해지면서 ODA와 같은 단순 자금공여나 지원방식만으로는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균형외교와 지역협력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지역적 중층관계가 심화됨에 외교지평 확대와 신흥시장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합한 '신아시아 전략'을 통해 지경학적 실리관계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지역적 리더십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기반으로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포용적인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세력과 대륙권의 림랜드(Rimland)로서 정치적·전략적으로 매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지속적 발전과 매개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새로운 지역적 통합전략으로 신아시아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은 권역별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단계,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하나 최근에는 경제 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 지역적 연계성과 확장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는 GDP 35.1조 달러, 인구 43.7억 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고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호혜적인 무역투자 기반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세안(ASEAN)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해 10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다.

ASEAN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고, 한·아세안 협력관계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로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교역 및 투자여건이 급격히 개선되고 개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 6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규모가 확대에 따라 집행관리 강화와 ODA 성과 제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다수기관에 산재한 ODA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원조예산의 급속한 확대로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유·무상 연계 고도화 등 다부처 협업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 인프라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패키지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민간재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대형화도 필요하다.

신아시아전략은 ASEAN-남아시아-아프리카를 연계한 지역협력의 고도화를 통해 확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ASEAN중심의 협력기반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로 이어지는 남아시아 통상벨트를 아프리카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별·권역별 공급망을 확대하고, ODA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가도 재지정할 예정이므로 신아시아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별 협력정책을 거점국가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몽골을 포함하여 유라시아의 거점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를 통해 북미와 유라시아 해안을 연결하는 북극 해상운송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발굴 방향인 K-OEI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의 핵심 중점전략과 SDG 14(해양 및 수산자원 보호)의 세부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국제협력비전도 글로벌사우스의 부상과 신아시아 전략에 기반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별·권역별 전략에 따라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세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해양수산 ODA 사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시혜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발굴에 있어서 수원국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단계에서 수원국 참여와 현지주도 사업방식 개선을 위해 성과지표 선정 및 추진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략부합성이 높은 전략패키지 사업 선정을 위한 하향식 사업발굴 및 선정체제를 수립하고, 핵심사업 및 주요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기획단계부터 유관부처와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전기획단계에서 주요 시행기관과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사업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개도국의 수요와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을 선임연구위원

〈주요 이력〉

- 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 전)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0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개발도상국 해상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역량 향상 사업(해양수산부)

▶ 사업 목적

- 필리핀에 해사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e-Navigation 서비스 제공·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해사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의 동반성장을 도모

▶ 사업 개요

- 필리핀 주요 항만에 웹 기반의 선박모니터링(위치, 속도 등) 시스템 구축지원 및 운용 인력 교육 등 역량 강화
- 사업기간: 2023~2026년
- 사업비: 40억 원

▶ 사업 대상

- 필리핀 국내외 여객선 및 화물선의 주요 거점인 마닐라·바탕가스·일로일로·세부항 지역



〈주요 항만〉

- 마닐라항(Manila)
- 바탕가스항(Batangas)
- 일로일로항(Iloilo)
- 세부항(Cebu)

기타 까가안테오로(Cagayan de Oro), 제너럴 산토스(General Santos), 다바오(Davao)항, 잠보앙가(Zamboanga)항 등이 있으나, 치안 위험지역인 민다나오를 제외한 루손과 비사야스 지역에 위치한 4개 주요항만을 구축 범위로 설정함

필리핀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상 지역

▶ 추진현황(2025년)

- 4월: 한-IMO-필리핀 착수 워크숍
- 4월: 필리핀 해사안전정보 공식 해도 및 간행물 현황 분석 완료
- 4월: 필리핀 항로표지, 선박교통서비스(VTS) 및 무선통신 현황 분석 완료
- 5월: 이행 협의서(IPA) 법률 검토(IMO 법무국-필리핀 해사청)

▶ 관련사진



필리핀 해사청장 면담 및 기관방문(필리핀 수로국)



ODA 사업 착수워크숍 회의 및 한-IMO-필리핀(해경) 3자 회의

▶ 향후계획(2025년)

- 6월: IMO-필리핀 간 이행협약서(IPA) 체결
- 7~8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 추진
- 10월: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컨퍼런스 기간 필리핀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기대효과

- 필리핀 e-Navigation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위치 추적, 충돌방지 경보, 기상 정보 통합 등 기능으로 해양사고 감소 및 인명 보호 실현 가능. 특히 소형 선박(어선, 페리 등) 안전성 대폭 향상과 태풍 및 악천후 대응 능력 개선을 통한 조난 사고 감소 기대
- 웹 기반 통합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 충돌방지 경보, 기상 정보 통합, 최적 항로 안내 등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하여 필리핀 현지 IT 및 해양기술 전문인력을 양성
- 한국의 우수한 e-Navigation 기술을 필리핀에 전수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해양 협력 관계 강화 및 아태지역 내 해양 기술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기여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신찬욱 주무관
coshin@korea.kr

피지, 통가, 바누아투 대상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GGGI)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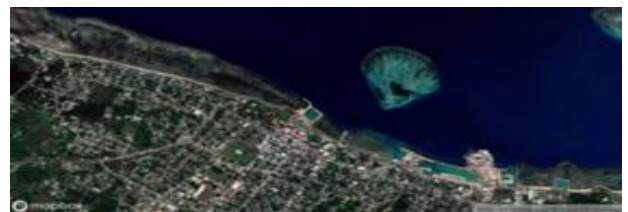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태평양 도서국가의 대응책 필요
- 저탄소 해상교통 도입 환경 조성을 통한 페루 피지-통가-바누아투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 사업 개요

- 도서 3개국(피지, 통가, 바누아투) 대상 ①저탄소 해상교통 로드맵, ②탄소배출 MRV 체계, ③저탄소 해상교통 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④선박육상전원(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실증 사업 등 관련 워크숍,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사업기간: 2024~2029년
- 사업비: 약 130억 원

▶ 사업 대상

- 피지 (Walu Bay, Suva), 통가 (Queen Salote Wharf), 바누아투 (Vuna Wha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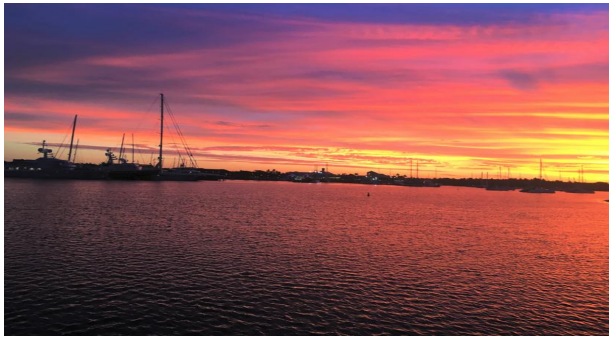


피지, 통가, 바누아투 선박육상전원(AMP) 설립 예정 부지

▶ 추진현황(2025년)

- 사업 사전 협의: GGGI 현지 사무소를 활용 사업 대상 3개국(피지, 바누아투, 통가) 정부기관과 세부 사업 계획 및 이행과 관련 사전 협의 진행
- 사전 시장 조사: GGGI 현지 인력을 활용 사업 대상국 내 AMP 및 저탄소 해상운송수단 관련 정책 및 시장 조사 수행
- 시범사업 대상지 탐색: GGGI 현지 사무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관련 현지 조사를 수행 후 각 국 정부와 세부협의를 거쳐 사업에 적합한 AMP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 저탄소 해상교통 로드맵 과업 세부 범위 협의: GGGI 현지 사무소에서 진행한 교통정책 부문 유사사업 및 정책 제언을 기반으로 해상교통부문 정책 갭분석 수행 및 해상교통 로드맵 과업 세부범위 협의
- 해상교통 MRV 시스템 구축 범위 협의: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하는 확장 가능한 해상교통 MRV 시스템 구축관련 수행범위 세부 협의

▶ 관련사진



피지 대나라우 항구 현지 사진



바누아투 항구 사진

▶ 향후계획(2022년)

- (세부사업1) ①저탄소 해상교통 로드맵 구축 수행, ②해상교통 MRV 시스템 구축 수행 등 계획
- (세부사업2) ①저탄소 해상교통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 ②육상전원공급설비 파일럿 사업 기획, ③민간주도 투자 촉진 세미나 기획 및 개최, ④ GCF 사업 개발 및 주요기관(NDA 등) 협의 등 계획
- (세부사업3) ①저탄소 교통 시스템 및 정책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

▶ 기대효과

- 저탄소 해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3개국(피지, 통가, 바누아투) 항만 선박의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
- 체계적인 해양교통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MRV 구축을 통한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강화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확보
- 선박육상전원(AMP) 설립 및 저탄소 해양교통 교육을 통해 도서지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해운 부분의 지속가능한 전화 도모 가능
- 민간주도 투자 촉진 활동을 통해 친환경 해운기술 도입 유도 및 한국의 선진화된 해양 기술 및 경험 전수가능 환경 조성 기대

GGGI 송필근 선임전문관
feelgeun.song@gggi.org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 개발 지원 사업(FAO)

▶ 사업 목적

- 스리랑카 및 페루의 새우양식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물인터넷과 AI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한 후, 각종 질병 및 재해 발생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생물보안 (biosecurity)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 실천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 개요

- 새우 양식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①생물보안 거버넌스 체제 및 위험관리(risk-management) 강화, ②식품안전성 시스템 강화, ③사물인터넷기술 및 AI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④빅데이터시스템의 비용효과 및 사회영향분석 등을 수행하여 생물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20~2025년
- 사업비: 50억 원

▶ 사업 대상

- 스리랑카 (푸틀람 지구의 칠라우), 페루 (툼베스 지역)



페루 반집약적 (semi-intensive) 새우 양식장 내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센서 점검 현장

▶ 추진현황 (경과)

-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Feasibility & Action Plans): 국가별로 새우양식산업 생물보안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완료, 각 국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 중
- 양식생물보안 단계적 관리경로 수립 (Progressive Management Pathway-Aquaculture Biosecurity): PMP-AB에 근거하여 병원체 목록 갱신, 양식장 단위 위험 평가 수행
- 지속가능한 양식관행 (Sustainable Practices): 지속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GSA) 개발지원
- 식품안전 시스템 (Food Safety Systems): 관련 법적 체계 검토 완료, 실험실 역량 평가 진행
- 디지털 인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양식장 센서 설치 완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모바일 앱 개발 중
- 비용편익 및 사회영향 분석 (Socio-Economic Analysis): 분석체계 수립, 비용편익 및 사회적 영향 연구 진행 중
-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생물보안, 식품안전,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인식 제고 캠페인 실행

▶ 관련사진



스리랑카·페루 새우 수생관리 강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양식장 센서 설치

▶ 향후계획(2025년)

- PMP-AB 절차에 따른 국가 생물보안 전략의 확정 및 제도화 (Output 2)
 - 국가 수산생물 건강전략(NAOHS) 수립: PMP-AB 틀에 따라 자국의 NAOHS를 최종 개발확정 예정으로, 질병 감시 체계, 긴급 대응 계획, 위험 기반 양식장 관리 기준 등 포함

- 강화된 식품안전 체계의 구축 (Output 4)
 -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인증체계 확정: 법률 검토와 위험 기반 모니터링 체계 완료, 항생제 사용(AMU) 지침(페루) 및 식품 품질 규정 준수 기준 (스리랑카) 발간
- 디지털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장 및 운영화 (Output 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모바일/웹 인터페이스, GIS 도구, 머신러닝 기반 조기경보 모델을 포함한 플랫폼 본버전 배포 및 시범 운영
- 사회경제적·행동적 영향 연구의 마무리 (Output 6)
 - 비용-편익 분석(CBA) 및 사회영향 평가(SIA) 완료: 스마트 양식 및 생물보안 강화 조치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 완료
-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지식 확산 (Output 7)
 - 맞춤형 교육 실시: 생물보안 위험관리, 긴급 대비 (contingency plan), 식품안전 규제, 디지털 도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AI 모델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추진

● 기대효과

- 스마트 모니터링 도구, 질병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물보안 및 식품안전 위협에 대한 조기 감지·예방·대응 역량 강화
- 식품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험 소통전략 (risk communication) 향상을 통해 국제 기준 준수 및 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
- 새우 양식 시스템의 회복력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정부·생산자·학계 간 협력체계 증진
- 국가수산생물 건강전략 수립, 빅데이터 통합, 글로벌 가이드라인 채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식 거버넌스 기반 마련
- FAO 전략과의 연계 및 확산 가능성을 통해 디지털·생물보안 기반 양식 전환의 국제적 확산 기반 구축

FAO 오광석 국장
kwangsuk.oh@fao.org

05

주요 행사

향후 계획

2025년 OCEANAID 워크숍 개최

▶ 행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 간 정보 공유·협력 촉진 플랫폼인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5년 7월 23일(수) / 세종정부청사 내 회의실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석대상) 해양수산부 및 소속·유관기관·국제기구 ODA 사업담당자 등 40여 명

- * 참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AO, IMO, PEMSEA 등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양자·다자성 ODA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 2025년 ODA사업 집행상황 점검 및 '26년 신규 ODA 사업 제안 대비 실무진 역량 강화
- 패키지형 ODA 및 KOICA 시그니처 프로그램 구성 전략 논의

2025 서부 아프리카 대상 WMU-MOF-KMI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 행사 배경 및 목적

- 서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 내 원양어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요 문제를 바탕으로 한 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일시 및 장소

- 25년 8월 18일(월) ~ 29일(금) / 가나 아크라

▶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B), 가나 수산위원회(GFC), 콩고민주공화국 농림부, 기니만중서부수산위원회(FCWC), 세네갈 국립해양수산청(ANAM), 세네갈선원학교(ENFM), 나이지리아 베냉대학교, 퓨 자선기금, US 연안경비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대한민국 조업감시센터(FMC), 해양경찰청 등
- (참석자) 서부 아프리카 수산관련 공무원 및 국가기관 소속 전문가 25명 내외, 불법어업 관련 국제기구 출신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총 60인)

▶ 주요내용

- 서부 아프리카 대상 IUU 어업 대응 훈련과 역량 개발에 대한 기관 간 통합적 접근
- UN 기구 간 국제협약 이행 방안 논의
- 국가별 사례 연구(Case Study) 및 역할극 등 프로그램 진행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민정 연구원
mjlee@kmi.re.kr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예섭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사무원

염승식 국제개발협력센터 사무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르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